

# 건보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사랑의 헌혈'

## 서울강원본부 직원 자발적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24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헌혈 주간과는 별도로 30여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헌혈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체 참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다.

홍무표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작년 11월에도 50여명이 헌혈에 참여 하였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 건물 앞 헌혈버스에서 헌혈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보유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헌혈의 날을 기획하

게 됐다"며 "혈액 수급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전국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차츰 줄여나간다는 취지의 법률이 지난해 4월 시행됐고 그에 따라 전국 공장 굴뚝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2200여개가 설치된다. 장비값과 설치비만 1대에 1억원 수준으로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만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전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지 않, 해당 장비 관리 지침은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각 사업장이 마음만 먹으면 장비의 상수값을 수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 정에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정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비가 고장나면 가장 반년 동안 수리기간을 주는 것도 의문이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이 기간 허용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게 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기업들이 이미 설치한 장비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최소 수리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을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공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가 국민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업계는 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 정에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정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 KCC, 4년째 취약계층 거주환경개선 이어간다

## 서초구와 '반딧불 하우스' 업무협약

KCC가 서울 서초구에서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KCC는 서초구 및 관내 복지기관들과 함께 '2021년 반딧불 하우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 취약 계층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공헌 활동을 4년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반딧불 하우스'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딧불이가 내는 빛처럼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환하고 밝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KCC는 이번 사업에 1억원 상당의 친환경 페인트, 건자재 등을 지원한다. 노후됐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각 대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1대 1 맞춤형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신청 가구를 모집해 신청 사유, 지원 시급성,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 주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공간복지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취약 청소년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1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바위보다 무거운 인생의 짐. **48년생** 하나의 걱정이 해소되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다. **60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기쁜 하루. **72년생** 구정 물에 발을 담그면 어찌될까. **8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 37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49년생** 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1년생**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7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5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 38년생** 문제가 있어야 정답도 있다. **50년생** 변화를 두려워 말고 과감히 도전. **6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4년생** 일록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86년생**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다가가라.
- 39년생** 향기 없는 꽃을 부러워 마라. **51년생** 벌을 두려워하고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63년생** 자식이 보물이나 보물이다. **75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니 것이니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87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 40년생** 최선의 지도력은 술선수범이다. **52년생**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4년생** 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76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88년생** 쥐띠 상사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 41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다. **53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게 좋다. **65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7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는 법. **89년생** 조상공덕이나 다른 공덕이 힘을 발휘한다.

- 42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54년생** 기본 소식이 오니 고민이 일시에 해결. **6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어야 한다. **7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90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해두자.
- 43년생**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55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한순간. **67년생** 심신이 고단하니 재물은 들어온다. **79년생** 금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91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가 확인.
- 44년생** 나이 들면 입은 무거워져야 한다. **56년생** 만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68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 **80년생** 상대의 실수가 기회일 수가 있으니 열심히 해내라. **9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노력하자.
- 4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 **5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방법. **69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단게 한다. **81년생**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93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 46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약간의 손해 발생. **58년생** 앞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하다. **70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온다. **82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된다. **94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역할을 다 한 것.
- 47년생** 헛된 꿈이 큰 망상을 다져준다. **59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라. **71년생**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준다. **83년생** 헤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니 기다려라. **95년생** 마음을 깔끔하게 원하는 바를 기도.



# 김상희의四季

## 희망의 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운세는 파죽지세처럼 뻗어나가는 기운일지도 모른다.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회사 규모도 커지고 탄탄해지는 운세.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운세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사실상 힘들다.

변창하는 시기가 있다면 침체하는 때도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에 상담을 왔던 대표께서 그랬다. 배 관련 사업이 잘될 때는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 번 큰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잘되는 것과 비슷하게 순식간에 망한 경험도 있다.

사업이 부침이 너무 심해 자기도 이제 지친 상태였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흥하고 크게 망하는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가 물었다. 답은 사주에 있었다. 그는 편재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편재는 사업의 재물이다.

재물을 얻을 때 순식간에 많이 얻는다. 꾸준한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횡재를 동반한다. 재물을 모으는데 재주가 있지만 횡재가 이어지니 지나친 행보를 벌이는 게 문제이다. 그는 고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주로 벌였고 성공하면 큰돈을 벌었다.

고수익이 나온다는 건 투기성이 강하다는 말과 같다. 잘못되면 크게 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망하는 양극단을 번갈아 거치며 지나온 것이다. 희망이 심한 지금의 상황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사업 방식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다.

모아두기도 하며 지나친 고수익을 쫓아다니는 사업 스타일을 바꾸는 게 방법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는 한 번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너무 횡재를 바라는 건 아닌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본 다음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자기를 다독이는 습관을 들이면 사업도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출판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 정답

6	8	2	7	9	1	5
9	1	2	8	6	7	3
2	9	7	5	1	8	6
7	5	1	2	8	9	6
8	2	9	6	7	1	5
2	1	6	9	5	7	8
9	2	7	8	6	5	1
1	7	8	1	2	9	6

7	2	6	9	1	8	5
1	2	9	6	7	8	3
9	8	1	2	5	6	7
8	9	7	2	1	5	6
6	5	1	8	9	2	7
2	1	9	5	6	7	8
9	6	2	8	7	1	5
1	7	8	1	2	9	6

고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5	9	7		3	8	4		
6	8						9	3	
1								6	
8			2	3	6			7	
			4		9				
9			8	7	1			4	
7								2	
4	6							3	5
1	3	6		4	7	8			

		2				8		
	1	3	4		8	7	9	
8	7						1	2
	6		9	4			3	
				6				
	9		5	2			6	
2	4						8	6
	3	6	8		9	5	2	
		1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743호	